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최진¹⁾ · 박현주²⁾

서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대상자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간호사들이 지녀야 할 전문직에 대한 신념 및 태도, 과학적 지식은 간호사들의 전문적 소양을 이루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동시에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및 간호전문화와 더불어 간호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전공심화과정, 방송통신대, 대학원 과정과 같은 계속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계속교육은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간호전문직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간호직 수행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열의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홍여신과 김영임, 1996).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기만족의 감정과 가치 있는 성취감으로서 특히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환자에게는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직무환경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므로(박현희, 2004)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발전 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이나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무만족의 바탕을 이루며 간호의 전문화와 학문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있다. 간호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학교교육 기간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발달하고(Geiger & Davit, 1988),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최은영과 김건효, 2000), 전문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속교육 참여 동기 반응도 높아(유지수, 김조자, 이원희와 박지원, 1987), 간호사의 자존감 및 자아개념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직무만족 및 전문직 자아개념과 상호 영향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간호 현장에서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이승희, 2008), 특히 학력과 임상경력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오현진, 2007; 강소영, 2006). 또한 임상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리더십 능력이 뛰어났고, 건강요구 인식, 비판적 사고능력,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고(오가실, 1999), 직업에 대해 재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직업인으로 머물면서 역할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omaker & Fairbanks, 1997).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성, 직무 스트레스,

주요어 :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1) 선린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cjjin@sunlin.ac.kr)

2)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투고일: 2009년 1월 28일 수정일: 2009년 2월 12일 심사완료일: 2009년 3월 4일

간호사-의사관계(Zangaro & Soeken, 2007), 환자간호, 간호환경, 업무량, 동료관계, 보수, 전문직 위상(Curtis, 2007), 연령, 결혼, 종교, 교육정도, 임상경력(김순현, 이미애, 2006; 서문경애, 2005)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순상관 관계(최은영과 김진효, 2000; 이승희, 20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속적인 학업수행과 이를 통한 학력의 신장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내적 요인으로서 간호전문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조직의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계속교육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스스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광역시 1곳과 경북 3개의 시, 군 지역에 위치한 3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대학급 이상의 간호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전공심화과정, 방송통신대 편입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문간호사 과정까지를 포함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밟고 있는 간호사 407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 도구

●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1990)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서보경(199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문직 실무 16문항(지도력 4문항, 기술 5문항, 융통성 7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의 3가지 하위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08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였다.

● 자기효능감

Tipon and Worthington(1984)이 개발하고 양숙미(2000)가 변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태도, 과제 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과업효능감 5문항, 자신감, 자기결정의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결과 기대와 관련된 대처효능감 10문항, 문제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좌절감, 불편감을 다루는 정서통제 효능감 3문항의 3가지 하위 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숙미(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였다.

● 직무만족도

Paula(1978)등에 의해 개발된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배분희(200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용은 봉급 3문항, 업무요구 4문항, 전문직 지위 5문항, 행정 3문항, 의사-간호사 관계 2문항, 자율성 4문항, 상호작용 3문항의 7개 하위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분희의 연구(2001)에서는 Cronbach's $\alpha=.71$ 이었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경자(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6$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3곳의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의 허락을 받고 현재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뒤, 7일 뒤에 회수하였다. 또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와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과 전공심화과정,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생(RN-BSN)의 수업이 있는 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2, 3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참여를 동의

하는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였으며 회수된 412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된 5부를 제외한 407부의 설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34.3%로 가장 많고, 23-29세가 28.4%의 순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66.6%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67.6%, 학력은 전문대졸이 89.5%였다. 임상경력 은 5-9년이 42.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24.1%였으며, 현재 병행하고 있는 학업과정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31.2%로 가장 많았고, 전공심화과정이 26.8%, RN-BSN이 21.9%, 대학원과정이 10.5%, 방송통신대 9.6%의 순이었으며, 학업과정의 총 지속기간은 3개월-1년이 60.4%, 1년-3년이 25.3%, 3-5년이 10.1%, 5년 이상이 4.2%로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83(±.34)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4(±.31)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2(±.38)점이 었다. 영역별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전문직 실무가 평균평 점 2.85(±.35)점, 만족감 2.83(±.32)점, 의사소통 2.80(±.34)점이 었고, 자기효능감에서는 과업효능감이 평균평점 3.67(±.30)점, 대처효능감 3.66(±.29)점, 정서통제 효능감 3.59(±.34)점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07)

구 분	N	%	
연령	23-29세	116	28.4
	30-34세	140	34.3
	35-39세	98	24.4
	40-44세	37	9.0
	45세 이상	16	3.9
결혼상태	미혼	136	33.4
	기혼	271	66.6
종교	유	275	67.6
	무	132	32.4
학력	전문대졸	364	89.5
	대졸	36	8.8
	대학원 이상	7	1.7
임상 경력	5년 이하	98	24.1
	5-9년	174	42.8
	10-14년	84	20.6
	15-19년	32	7.8
	20년 이상	19	4.7
현재 병행하고 있는 학업과정	방송통신대	39	9.6
	RN-BSN	89	21.9
	학점은행제	127	31.2
	전공심화과정	109	26.8
	대학원과정	43	10.5
학업과정의 총 지속기간	3개월-1년	246	60.4
	1년-3년	103	25.3
	3년-5년	41	10.1
	5년 이상	17	4.2

<표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정도 (N=407)

변 수	Mean	SD	최소값	최대값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실무	2.85 ±.35	1.00	3.56
	만족감	2.83 ±.32	1.62	3.88
	의사소통	2.80 ±.34	1.21	3.85
	소 계	2.83 ±.34	1.59	3.88
자기효능감	과업효능감	3.65 ±.30	1.00	4.55
	대처효능감	3.66 ±.29	1.55	4.76
	정서통제 효능감	3.59 ±.34	2.29	4.37
	소 계	3.64 ±.31	2.25	4.66
직무만족도	봉급	3.06 ±.36	1.00	4.10
	업무량	2.99 ±.35	1.05	4.18
	전문직 지위	3.15 ±.39	1.00	4.23
	행정	3.09 ±.37	1.53	4.27
	의사-간호사관계	3.11 ±.38	1.27	4.45
	자율성	3.15 ±.37	1.06	4.22
	상호작용	3.19 ±.39	1.89	4.65
	소 계	3.12 ±.38	1.83	4.32

직무만족에서는 봉급이 평균평점 3.06(±.36)점, 업무량 2.99(±.35)점, 전문직 지위 3.15(±.39)점, 행정 3.09(±.37)점, 의사-간 호사 관계 3.11(±.38)점, 자율성 3.15(±.37)점, 상호작용 3.19(±.39)점이었다<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연령(F=45.49, p=.000), 결혼상태(t=3.68, p=.001), 학력(F=35.24, p=.000), 임상경력(F=5.31, p=.003), 학업과정의 총 지속기간(F=6.565, p=.0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검정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10-14년일 때, 학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보다 5년 이상일 때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연령(F=11.56, p=.037), 학력(F=3.03, p=.032), 임상경력(F=4.22, p=.01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검정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전문대졸보다 대학원이상에서,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정도는 연령(F=6.56, p=.035), 종교(t=5.85, p=.016), 학력(F=2.99, p=.045), 임상경력(F=9.8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cheffe'검정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학력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학업과정 총 지속기간, 종교 등을 통제하여 편상관 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r=.521, p=.000), 직무만족도(r=.273, p=.012)와 순상관 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r=.395, p=.000)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일부 변수를 통제한 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도 간의 편상관관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1.00		
자기효능감	.521**	1.00	
직무만족도	.273*	.395**	1.00

* p <.05 ** p <.01

통제변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학업과정 총 지속기간, 종교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도 차이검정 (N=407)

구 분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연령	23-29세 ^a	2.71±.28	45.49(.000)	3.50±.33	11.56(.037)	2.99±.35	6.56(.035)
	30-34세 ^b	2.84±.31	a<b<e	3.62±.31	a<b<c,d	3.10±.42	a<b<c<d
	35-39세 ^c	2.85±.30		3.80±.32		3.19±.35	
	40-44세 ^d	2.89±.29		3.84±.31		3.35±.34	
	45이상 ^e	2.92±.27		3.71±.34		3.33±.40	
결혼상태	미혼	2.77±.33	3.68(.001)	3.63±.29	1.36(.288)	3.17±.39	1.12(.303)
	기혼	2.85±.35		3.66±.33		3.10±.37	
종교	유	2.86±.36	3.62(.079)	3.68±.34	1.47(.274)	3.25±.40	5.85(.016)
	무	2.82±.32		3.62±.36		3.02±.33	
학력	전문대졸 ^a	2.70±.29	35.24(.000)	3.61±.30	3.03(.032)	3.06±.37	2.99(.045)
	대졸 ^b	2.85±.34	a<b<c	3.64±.36	a<c	3.19±.39	a<b,c
	대학원이상 ^c	2.92±.32		3.73±.31		3.18±.37	
임상경력	5년 이하 ^a	2.73±.28	5.31(.003)	3.55±.33	4.22(.019)	3.02±.35	9.88(.001)
	5-9년 ^b	2.82±.29	a<b<c	3.64±.31	a<b<c,d	3.11±.37	a<b<c<d,e
	10-14년 ^c	2.90±.32		3.71±.32		3.25±.38	
	15-19년 ^d	2.88±.31		3.74±.30		3.35±.34	
	20년 이상 ^e	2.85±.31		3.61±.28		3.36±.32	
현재 병행하고 있는 학업과정	방송통신대	2.83±.33	.63(.459)	3.84±.32	-.53(.562)	3.11±.40	.44(1.42)
	RN-BSN	2.86±.34		3.86±.31		3.18±.35	
	학점은행제	2.81±.34		3.71±.34		3.10±.37	
	전공심화과정	2.80±.35		3.63±.29		3.15±.38	
	대학원과정	2.88±.29		3.66±.33		3.17±.39	
학업과정 총 지속 기간	3개월-1년 ^a	2.77±.28	11.87(.022)	3.62±.31	3.65(.061)	3.11±.40	.31(.784)
	1-3년 ^b	2.82±.35	a<d	3.80±.32		3.13±.39	
	3-5년 ^c	2.87±.29		3.84±.31		3.17±.37	
	5년이상 ^d	2.90±.32		3.71±.34		3.15±.38	
계		2.83±.34		3.64±.31		3.12±.38	

논 의

간호의 전문화와 더불어 최근 많은 수의 임상간호사들이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간호 인력관리의 일환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업 및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최대평점 4점에 대해 2.83(±.34)점으로 Arthur(1990)의 도구로 연구한 이승희(2008)의 2.71점, 김원경(2007)의 2.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 순으로 김원경(2007), 최은영과 김건효(2000) 연구의 의사소통, 전문직 실무, 만족감 순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 전문직 실무와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높고 만족감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간호의 전문화와 더불어 간호사들이 교육과 실무, 연구 활동을 통하여 개개인의 능력은 신장되었으나 만족감은 간호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근무 환경이나 행정, 조직문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이에 비례하여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행정 영역은 간호조직의 관리를 벗어난 부분도 많으므로 보건·의료 체계내에서 간호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실무 부분에서의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64(±.31)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승희(2008)의 3.49점, 장희정, 양순옥 및 이명옥(2007)의 3.56점보다는 높았다. 영역별로는 과업효능감, 대처효능감, 정서통제 효능감 순이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 오현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고 특히 과업효능감이 높은 이유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개개인이 지닌 내적자원으로서의 일반적인 효능감이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직무만족 정도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12(±.38)점으로 이승희(2008)의 2.99점, 박정혜(2003)의 2.73점보다는 높고, 김경자(2004)의 3.26점보다는 낮았으며, 영역별로는 본 연구와 박정혜(2003), 김경자(2004)의 연구에서 모두 전문직 지위, 상호작용, 자율성 영역의 만족도가 높고, 행정, 업무량, 봉급 부분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김경자(2004)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전문간호사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보다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

도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로서 학업과정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며 간호전문직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동료 및 상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 발전과업을 이루면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향상되며 반대로 업무량 과다, 의사결정권 제한, 복지시설의 부족, 보수 불만족 등의 업무와 행정적 문제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연령, 임상경력, 종교,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이승희, 2008; 봉영숙, 2007; 성기월,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아질수록 직무수행 능력 및 직위가 향상되어 업무를 통한 성취감이 증가하며 또한 내적 성장을 위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을 경우에 업무에서의 긍정적인 정서가 더욱 증가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대상자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아 학업을 통한 자기발전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며 이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자율성(Zangaro & Soeken, 2007), 전문직 위상(Curtis, 2007)과 같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내적요인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맥락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계속교육은 해당 전문 영역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홍여신과 김영임, 1996), 계속교육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므로(성영주, 1999), 간호사의 학업수행은 학력의 신장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학업과정의 총 지속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연령과 학력,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승희(2008), 오현진(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Leddy & Pepper, 1985),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교육기간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발달(Geiger & Davit, 1988)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춘길, 노춘희(1999)의 연구에서 전문대학 졸업 후 간호학사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입학 시와 졸업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이며 학업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전문직 자아개념은 일정기간의 임상경력과 학업과정이 병행되어야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연령과 임상경력,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향상되었으며 이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임상경력이 오래될수록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업무효율성과 자신감을 터득하게

되고 학업까지 병행하게 되면 지식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상간호사의 학업 활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학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으로서 학력이라는 변수와도 의미상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간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승희(2008), 최은영과 김건호(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며 이를 위하여 간호사들이 계속교육을 받고 자기발전을 하면서 임상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간호조직 내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지지체계와 보상체도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임상경력과 지속적인 학업을 통한 학력의 신장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임과 동시에 업무요구, 행정, 보수와 같은 기관의 제도적 지지체계에서 직무만족도가 떨어짐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관의 행정이나 업무체계 및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업무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을 때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학교와 2, 3차 병원을 방문하여 해당부서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412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된 5부를 제외한 407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는 Arthur(1990)가 개발하고 서보경(1995)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와 Tipon and Worthington (1984)이 개발하고 양숙미(2000)가 번역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Paula(1978) 등이 개발하고 배분희(2001)가 수정, 보완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평점 2.83(±.34)점,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64(±.31)점, 직무만족도는 평균평점 3.12(±.38)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서는 의사소통이 2.80(±.34)점, 자기효능감에서는 과업효능감이 3.67(±.30)점, 직무만족도에서는 상호작용이 3.19(±.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학업과 정의 총 지속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연령, 학력,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는 연령, 종교, 학력, 임상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변수간의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r=.521, p=.000$), 직무만족도($r=.273, p=.012$)와 순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r=.395, p=.000$)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임상경력과 학력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학업을 통해 간호전문직관과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고 학력을 신장시키면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교육을 장려하는 간호조직 내에서의 지지체계가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 않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6).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및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춘길, 노준희 (1999). 간호학사 특별과정생의 직업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교육학회지*, 3(2), 250-266.
- 김경자 (2004). *임상전문간호사의 직무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김순현, 이미애 (2006). 간호사가 지각하는 보상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2(1), 122-130.

- 김원경 (2007).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남부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광주.
- 박정혜 (2003). *임상간호사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박현희 (2004). *임상간호사의 파워와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배분희 (2001). *임상간호사의 역할인식정도와 직무만족도*.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서보경 (1995).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서문경애 (2005).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개인성과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1(1), 1-13.
- 성기월 (2002). *보건간호사와 임상간호사의 주된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 정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2), 219-230.
- 성영주 (1999). *종합병원 간호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수용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양숙미 (2000).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오가실 (1999). *교육과정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간호학 탐구*, 8(1).
- 오현진 (2007). *임상간호사의 자기,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유지수, 김조자, 이원희, 박지원 (1987).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태도 및 계속교육 참여 동기와의 관계 연구*. *간호학 논문집*, 10, 36-47.
- 봉영숙 (2007).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광주.
- 이승희 (2008).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1), 10-20.
- 장희정, 양순옥, 이명옥 (2007). *전문간호사 요구에 따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기본간호학회지*, 14(1), 110-119.
- 최은영, 김건효 (2000). *신장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3), 345-355.
- 홍여신, 김영임 (1996). *간호학 특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Arthur, D.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Curtis, E. A. (2007). *Job satisfaction: A survey of nurses in the republic of ireland*. *Int Nurs Rev*, 54(1), 92-99.
- Geiger, J. W. K., & David, J. S. (1988).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 Manage*, 19(12), 50-58.
- Leddy, S., & Pepper, J. M. (1985).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 Paula (1978). *Measurement of work satisfaction among health profession*. *J Med Care*, 13, 343.
- Shomaker & Fairbanks(1997). *Evaluation of an RN to BSN distance education program via satellite for nurses in rural health care*. *J Nurs Educ*, 36(7), 328-330.
- Tipon, R. M., & Worthington, E. L. (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 Pers Assess*, 48, 545-548.
- Zangaro, G. A., & Soeken, K. L. (2007). *A meta-analysis of studies of nurse's job satisfaction*. *Res Nurs Health*, 30(4), 445-458.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Choi, Jin¹⁾ · Park, Hyun Joo²⁾

1)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unlin College University

2)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407 nurses in 3 cities. The questionnaire measured the level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 **Result:**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83(±.34) self-efficacy was 3.64(±.31), job satisfaction was 3.12(±.3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ree variables according to age, a clinical career, level of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The self-efficacy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From the studies reviewed, it can expect the positive effect to improve the self-effica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when the nurses who have continuous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se findings would be important resource to nurse administrators for clinical implication.

Key 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Jin

Department of Nursing, Sunlin College University

146-1, Chogok-dong, Hunghea-uep, Buk-gu, Pohang City 791-712, Korea

Tel: 82-54-260-5517 Fax: 82-54-260-5519 E-mail: cjin@sunlin.ac.kr